

축하해

인디언들은 생일을 축하하진 않는다지.

그보다는 조금씩 나아짐을 축하한대.

용기 내어 새 삶으로 첫발을 디딘 걸 축하해.

누구나 이 세상에 온 아름다운 이유가 있대.

그 이유를 찾는 그날까지 포기하지 않을 너와 나를 미리 축하해

박금선 지음

아름다운 그대들,
힘껏 박수쳐 드리고 안아드립니다.

-양희은(가수)

꽃처럼 피어올라야 할 어린 친구들과
남자들이 꼭 읽어봐야 할 책.

-알렉스(가수)

【산티】

우리는 서로가 '내 고향 사람'!

가만히, 가장 아끼는 친구를 떠올려보세요. 그 친구를 어떻게 사귀었나요? 처음에는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고, 그러다가 눈이 마주치고, 이야기를 나누고, 어느 순간 그 친구가 내 마음에 들어옵니다. '언니'들과의 만남도 그랬습니다.

이 글은 성매매를 했던 언니들의 이야기예요. 성매매라니, 낯설다고요? 그럴 거예요. 그러나 성매매가 우리와 아주 먼 일이기만 할까요? 현실은 그렇지도 않습니
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사회에서는 성매매와 관련된 적지 않은 사건들이 있었어
요. 2007년 9월에는 고등학교 수학여행 성매매 사건도 있었고, 청소년끼리 성매매
를 시킨 뒤에 화대를 갈취하는 범죄도 여럿 있었습니다. 나쁜 어른들의 흉내를 낸
거예요.……

언니들을 만난 느낌을 묻는다면, 저는 '내 고향 사람' 같았다고 할래요. 여성이
고 여자라는 고향, 딸이라는 고향. 색깔과 모양은 달라도 저마다의 사연이
있고, 열심히 살고 싶고, 행복해지고 싶고, 사랑받고 싶은 열망이 간절
한 언니들은 분명, '이 땅의 여자' 라는, '이 땅의 여성' 이라는
내 고향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책을 통해 언니들을 만난 후에 더 넓어지고
더 깊어져서, 주변을 둘러보는 멋진 분이 되어주세요. 한
번 길을 잃었다고 해서 영영 미아가 되는 게 아니라 다시
길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우리 사회를 만들어주세요.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의 내일을 같이 앞당겨봐요.

2008년 겨울, 고향 사람이자 옆집 아줌마, 박금선

6 작가의 말—우리는 서로가 '내 고향 사람'!

8 세상에 말 걸기

10 열일곱 살 소녀에게 쓰는 편지

42 나의 물음표—세상에는 참 이상한 게 많더라

54 사랑에 속고 돈에 울고

56 열다섯, 그때로 돌아가고 싶어

74 이모티콘이 전해준 이야기—내 이름은 여고생

84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 없잖아

116 진짜 사랑 사용 설명서

130 나에게 소중한 것을 보여드릴게요

140 사랑보다 힘든 용서

142 내가 세상에서 가장 잘한 일

160 안심하렴, 너는 장수풍뎅이야

186 날개를 달다

188 언니들의 세상 공부

204 나는 이정표가 될래요

234 그래, 내일은 오늘보다 나아질 거야

243 성매매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긴급 전화

열일곱 살 소녀에게 쓰는 편지



안녕, 열일곱 살 소녀야. 내가 평범하게 자라 일찍 결혼했다라면 어쩌면 너만한 딸을 두었을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열일곱 소녀에게 편지를 쓰냐고? 그렇기도 해.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는 내 인생이 열일곱 살 때 어긋나기 시작했기 때문이지. 그래서 나는 열일곱 살이라는 말만 들어도 가슴 저 안쪽이 아려온다.……

우리 엄마와 아빠는 내가 네 살 때쯤 이혼을 하셨대. 아빠는 혼자 나를 키우다가 재혼을 하셨어.…… 아빠가 돈 벌러 외국에 나가고 안 계시자, 새엄마는 친정 식구들을 데려다가 같이 살면서 나에게 밥과 청소를 맡겼어. 밥도 식구들이 다 먹은 다음에 남은 걸 먹어야 했고, 옷차림도 엉망이었단다. 새엄마가 친정식구들과 놀러가서 며칠 들어오지 않기도 했는데, 아무리 뒤져도 먹을 게 없을 때는 수돗물을 한 대접씩 벌컥벌컥 마셨단다. 열 살도 안 된 나이에

집을 나가서 일을 하면 혼자서도 먹고 살 수 있을 것 같았어. 구박만 받는 집보다는 차라리 더 나을 것 같았지. 무얼 하며 살아야 할까, 생각하며 걷는데 “제과점 서빙 모집”이라고 적힌 종이가 전봇대에 붙어 있더라. 그래서 거기



적힌 전화번호로 전화를 했어. 목소리 고운 아주머니가 근처 빵집에서 만나자고 하더라. ……

아저씨들은 나를 태우고 고속도로를 달렸어. 어디에선가 차를 세우더니, 잠깐 눈을 붙이고 가야겠다는 거야. 그러더니 나를 여관으로 데려가서는…… 이 글을 읽는 열일곱 살 소녀야.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너는 상상할 수 없을 거야.……

내가 만나는 세상은, 성매매업소와 거기 오는 손님들뿐이었어. 자신을 ‘시인’이라고 소개했던 어느 남자는 내게 말했지. “내가 시키는 이상한 짓을 하는 게 힘들지? 그럼 배우가 됐다고 생각해. 그냥 연기하는 거라고.” 그 말이 도움이 되기도 했어. 그 일은 너무 싫은 일이어서, 내가 나로 존재하게 하는 일이 아니거든. 난 배우여서 연기를 하고 있을 뿐이라고 자꾸 나 자신을 속여야 했단다.……

나는 갑자기 고객들 번호를 지우기 시작했어. 삭제! 다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번호가 하나하나 사라질 때마다, 내 안의 어둠이 한 조각씩 걷히고 있었어. 휴대전화기 안에 저장된 전화번호부를 다 정리했을 때, 천근만근이던 몸이 훨훨 날아오르면서 미소 짓고 있는 나를 발견했어. ‘아, 내가 성매매 일에서 탈출했구나!’ 하고 실감했단다. 자유의 느낌이 그런 걸까.……

안심하렴, 너는 장수풍뎅이야

고등학교 2학년이던 어느 봄날, 상담실의 남자 선생님이 나를 불렀어. 상담해야 한다고. 방과 후도 아니었어. 상담실로 들어갔지. 선생님은 문을 잠그더군. 비밀 이야기를 하시려나? 선생님은 갑자기 내게 옷을 벗으라고 했어. 그리고 그 일이 일어났어. 소리를 지를 수도 있었을 텐데, 나는 교실 밖 아이들이 두려웠어.

그 일을 당한 것보다, 아이들이 알게 된 게 더 무서웠어. 아이들이 이제 나와 놀아주지 않겠지? 이제 나는 왕따가 되는 거겠지? 작은 시골에서 소문은 빨리도 돌아, 이틀이 채 지나지 않아 엄마가 알게 되었어.……



내가 장수풍뎅이를 식구로 선택한 건 이유가 있었던 거야. 열여덟 살, 그때로 잠시 돌아가 장수풍뎅이를 선택한 거지.

나는 그때 그 누구에게도 나의 상처를 들이지 않을 단단한

투구가 필요했던 거야. 투구를 쓰고 갑옷을 입고, 날카로운 창까지 지니고 나는 매일 등교했는데, 친구들은 내게 말을 걸지 않았어. 여기 와서 우리와 함께 놀자. 그런 말을 간절히 기다렸지만, 아무도 내게 말을 걸지 않았어.……

그곳의 생활은 기억하고 싶지 않아. 단골손님도 생기고, 그곳 생활에 익숙해지고 4년쯤 되었을 때, 나는 아무 생각 없이 사는 나를 발견했어. 밤새도록 남자들에게 몸을 팔고, 다음 날이면 오후 늦게 억지로 일어나고, 다시 남자들에게 몸을 팔고. 마치 녹음테이프처럼 내 몸이 돌아가고 있었어. 어느 날, **몸을 파는 나를 내 영혼이 빠져나와서 보고 있는 걸 발견했어.** 내 영혼은 내 몸을 바라보며 불쌍하게 여겨야 할 것 같은데, 이상하게 그냥 바라만 보았어. 마치 나를 때리던 아빠와 맞는 나를 외면했던 엄마처럼, 내 영혼도 나를 외면하는 게 보였어.……



이건 아냐, 많이 잘못되어 가고 있어! 나는 남자에게 성을 팔다 말고 소리쳤지. 벌떡 일어났다고 그 남자에게 한 대 세게 맞았지만, 나는 그 길로 상담소를 찾아갔어. 내가 쉼터에 들어가니, 그들이 내 갑옷을 벗기고 내게 있는 상처를 소독하고 치료해 주었어. 투구를 벗겨 내 이마의 땀을 닦아 주었지. 나는 엄청난 부상을 입었어. 의사는 그 부상의 이름이 자궁경부암이라고 했어. 스물 몇 살의 내가 **자궁경부암 초기.**……

나는 지금 대학 입시를 준비하면서 발 마사지사로 일하고 있어. 누군가 무얼 하며 사느냐고 물으면 나는 자랑스럽게 대답하지. 대학 입시를 준비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르바이트로 발 마사지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사회에서는 성매매와 관련된 적지 않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2007년 9월 고등학교 수학여행 성매매, 10대 청소년 성매매 알선 및 착취 등 성매매가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는 통계가 나오고는 있지만 여전히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매수 범죄와 성매매 알선 유인은 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07년 경찰청 자료에 의하면 점점 더 많은, 그리고 더 어린 청소년들이 성매매에 유입되며, 이로 인한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빈곤 등으로 인해 가출한 청소년들에게 ‘숙식제공’ ‘월수○○○보장’이라는 내용의 전단지과 한 번만 만나주면 용돈과 잘 곳을 제공한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들은 이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쉽게 성매매로 빠져들게 합니다. 그러나 청소년 시기에 성매매에 유입되는 경우 그 피해는 매우 심각합니다. 모든 것이 통제되는 성매매 공간 안에서의 삶은 독자적인 생활 능력을 떨어뜨리고, 일상적인 삶을 망가뜨려 탈성매매 이후의 삶까지 힘들게 만들어버립니다.



실제로 청소년기에 성매매에 유입되어 빛과 질병, 반복되는 폭력을 경험한 여성들이 새로운 삶을 만들어가기 위해 많은 것들을 힘겹게 배우고 익혀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2004년 성매매방지법이 시행된 이후 제공되고 있는 성매매 여성지원 정책과 활동들은 작지만 이들이 기댈 수 있는 토대가 되고 있습니다. 지원을 통해 탈성매매 후 삶을 이어가고 있는 여성들도 성매매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이러한 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자라나는 젊은 친구들은 자신과 같은 고통을 겪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입니다.



장수풍뎡이야, 이제 그만 일어나 툽툽. 숨을 쉬어야지 툽툽. 어쩌면 죽음은 이런 건지도 몰라.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 것. 내게 지난 어느 한 시절이 죽음이었다면, 나는 죽음을 이렇게 바라만 보면 돼. 그런 일이 있었든 없었든 나의 과거는 여전히 아름다운 광채를 가지고 있는지도 몰라.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지. 이제 작별을 해야겠구나, 장수풍뎡이야, 툽툽. 나의 과거와도 이제 그만 이별을 해야겠구나, 툽툽.

장수풍뎡이를 꽃밭에 놓아주었어. 이젠 유리 상자 안의 톱밥을 버릴 차례. 한 번에 쏟아버릴까, 조금씩 덜어낼까. 어라? 그런데 이건 뭐지? 아하! 이것이 애벌레로구나. **모든 것이 사라졌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았구나. 죽음은 죽음이 아니었구나.** 내일을 꿈꾸는 또 다른 소망이 유리 상자에 있었구나.

죽어도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지. 아름다운 건 아름다운 그대로 영원하지. 나는 여전히 아름답고, 그러니 안심. 애벌레 너도 이제 안심.



이 책도 그러한 배경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성매매와 탈성매매, 그리고 자활을 경험한 여성들이 자신들의 성매매 유입 과정과 동기, 피해 경험, 탈업소, 자활에 이르는 전 과정을 솔직하고 담담하게 풀어냄으로써 더 이상 성매매 없는 세상의 이정표가 되려는 바람에서지요. 십대 딸을 둔 작가의 열성까지 더해져 솔직한 구술과 기록의 과정을 거쳐 마침내 이 책이 탄생되었습니다.

〈열일곱 살 소녀에게 쓰는 편지〉의 주인공 여성은 열일곱 청소년기에 성매매로 유입되었고, 다르게 살 수 있는 삶의 기회에 대한 정보를 가지지 못한 채 반생을 살아온 사람입니다. 당장 성매매를 그만두고 싶지만 빚과 질병, 삶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하루하루를 버티다 성매매여성지원기관의 도움을 받아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삶은 지난했고, 앞으로의 삶도 순탄할 것 같지는 않지만 성매매로부터 벗어난 후로 자유로워졌고, 또 삶은 기대로 가득 차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탈성매매 이후의 삶이 순탄하기만한 건 아닙니다. 힘든 여정 속에서 자신을 포기하고 싶어지기도 하고, 익숙했던 삶인 성매매로 재유입하고자하는 유혹을 느끼기도 합니다. 폭력적인 상황과 빚에서 벗어나기만 하면 새로운 삶에서 행복할 줄 알았지만, 생활인으로서 이들은 하루하루가 무겁습니다.

우리 사회가, 사람들이 조금만 더 여유를 가지고 자신들을 지켜보아 준다면, 그리고 성매매가 아닌 다른 일에 익숙해질 때까지 조금만 더 시간을 준다면 새로운 삶은 지속되고, 또 사회적으로도 탈성매매가 확산될 수 있을 거라고 이들은 확신합니다. 그리고 더 많은 성매매 여성들이 자신들의 삶을 디딤돌 삼아 좀더 빨리 성매매에서 벗어나려는 용기를 가질 수 있고, 그 하나하나의 용기가 모여 성매매 없는 세상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여성인권중앙지원센터 종이학



지은이 박금선

13살, 16살 남매의 엄마. 현재 MBC 라디오 ‘여성시대’ 작가. 사람 사는 얘기를 듣는 것과 쓰고 그리는 것을 좋아한다. ‘엄마 성(김)’을 딸 이름에 꼭 넣고 싶어 한—세상에, 앞서 나가기도 하셨지—엄마를 두어, 박금선朴金鮮이 되었다. 1993년 MBC 방송연예대상 작가상, 2005년 한국방송작가상(교양부문)을 수상하였다. 이 책 《축하해》를 쓰는 일은, 여성과 사람과 사회에 대한 근원적인 생각을 할 수 있게 해준 고마운 작업이었다. 언니들의 까치발서기를 영원히 잊을 수 없을 것이다.

기획 여성인권중앙지원센터

2005년 11월 문을 연 뒤 성매매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전국 기관들 간의 소통과 협력 활성화, 활동가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하고 있다. 또한 성매매 여성의 치유와 자활을 위한 매뉴얼 및 프로그램 제공, 국내의 성매매 방지 활동 관련 정보 공유 사업을 하며, 성매매 여성의 인권 향상을 통한 폭력 없는 사회, 성 평등한 사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http://www.stop.or.kr/>



제작 도서출판 산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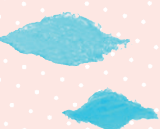
산스크리트어로 평화를 뜻하는 ‘산티’는 몸과 마음과 영혼의 평화에 도움이 되는 책을 만들고자 2003년부터 책을 내기 시작했다. 책이 활자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삶과 밀접하게 연관 짓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회원 제도를 두고, 회원·독자들과 함께 놀이나 치유, 학습 프로그램 등을 작고 소박하게 진행하고 있다.

<http://blog.naver.com/shantibooks>

지원 여성부

<http://www.moge.go.kr/>





10대 딸아이를 둔 부모, 그리고 모든 남자들이 꼭 읽어야 할 책

우리 어린 딸들이 당하는 고통과 절망에 공동 책임을 져야 할 모든 이에게 이 책을 권한다. 특히 10대 딸아이를 둔 부모들은 반드시 읽어야 할 책이다. **이이효재(여성학자)**

인생이라는 거친 바다를 헤치고 나와 스스로 등대가 되려, 지금, 여기 함께 있는 그대들, 참 장하고 아름다운 그대들, 힘껏 박수쳐 드리고 안아드립니다. **양희은(가수)**

성매매 여성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은 이 책은 청소년들을 성매매로부터 보호해야 할 어른들 모두를 반성과 행동의 길로 이끈다. **강지원(청소년보호위원회 초대위원장)**

울다가 웃다가 또 울고 다시 웃었다. 가장 깊은 상처 보고서. 당당해서 찬란한 희망 보고서. 이진 살아있는 사람들의 동화이다. **오한숙희(여성학자, 방송인)**

사랑과 성을 돈 주고 사고파는 건 인간에 대한 모독이다. 돈이면 다 되는 세상이라지만, 나만큼 네가 소중하다는 원칙만은 지켜지는 세상이길 바란다. **배철수(방송인)**

누구에게나 허락된 ‘당당함’을 어렵게 얻어낸 이들. 이젠 이들이 좇는 희망을 읽어보자. 꽃처럼 피어올라야 할 어린 친구들과 남자들이 꼭 읽었으면 싶다. **알렉스(가수)**

남성들의 성매매업소 출입을 흥밋거리로 여겨왔다. 그러나 그것이 잘못된 생각임을 알았다. 성매매 여성들은 결코 그 일을 원해서 하는 게 아니었다. **박상훈(공군 상병)**

대한민국 남자라고 자부하며 살아온 내 삶에 부끄러움을 안겨준 책. 성매매 여성들에게 죄송한 마음을 전한다. 군 입대를 앞둔 청년들에게 권한다. **김재한(육군 중사)**

작은 관심과 애정이 필요했던 그들을 성매매로 내몰면서도 비난하기만 했던 비뚤어진 우리 사회의 모순을 해결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했다. **김병준(회사원)**

‘언니들’ 이 말을 걸어왔다. 솔직하게 털어놓은 그녀들의 역사는 상상보다 더 눈물겹고 치열했다. **김윤영(대학생)**

인생의 끝길에서 벗어나려는 그들의 몸부림을 마치 가까운 친구의 그것처럼 가슴 아프게 느꼈다. **윤장원(대학생)**

값 12,000원

